



AS에 눈뜬 장미경...박지수 합류땀 새 전술 고민

〈어시스트〉 (북측 선수) (WNBA 활약)

장미경, 인도전 11득점·8AS·5스틸
스피드 발군...남측선수와 호흡 적적
장신 박지수 합류 전력상 큰 도움 불구
공격패턴 변화 등 새 전술 적응 과제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을 이끌고 있는 이문규 감독은 지난 17일 A조 조별리그 대만과의 2차전에서 연장전 끝에 85-87로 패한 뒤 선수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그리고 "우리 모두 최고의 선수들 아닌가. 너희들이 최고다"고 말했다.

농구는 공격과 수비 모두 조직력이 매우 중요한 종목이다. 서로 약속한 패턴에 맞춰 효율적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 단일팀의 가장 큰 속제는 '화학적 결합'이다. 이문규 감독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는 북측 장미경을 포인트 가드로 기용하며 남측 강이슬, 박하나 등 슈터들의 외곽 슛 찬스를 살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자농구 단일팀은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BK 농구장에서 열린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인도에 104-54로 대승을 거두고 2승1패를 마크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장미경의 활약이다. 이날 11득점과 함께 어시스트 8개로 활발한 공격을 이끌었다. 역시 돋보인 부분은 스피드다. 어시스트와 함께 스틸 5개로 인도 공격의 흐름을 고비 때마다 끊었다.

경기 후 장미경은 남측 취재진과 만났다. 쑥스러운 미소와 함께 "만족하지 않습니다"고 소감을 말한 뒤 "관중들이 코리아를 외치며 열심히 응원했다"는 말에 "전 인민들의 응원을 받으니 힘이 날 수 밖에 없다. 더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남측 선수들과 호흡에 대해서는 "어느 선수 누구 한 명이라고 말할 것 없이 모두 잘 맞는다. 점점 더 잘 맞추고 있다. 농구용어의 차이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문규 감독은 "장미경은 그동안 혼자만 들어가는 농구에 익숙했다. 어시스트가 주는 재미를 배우고 있다.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선수들과 더 호흡을 잘 맞춰 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남북단일팀 코리아의 김한별(왼쪽), 장미경(뒤 가운데), 박하나(오른쪽)가 20일 겔라라 봉 카르노 농구장에서 열린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여자농구 A조 조별리그 인도와의 3차전에서 상대 선수를 협력수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팀은 또 한번 전술적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WNBA에서 활약한 장신 센터 박지수가 곧 합류할 전망이다. 전체 엔트리 12명 중 3명이 북측 선수인 단일팀은 나머지 한 자리를 박지수 몫으로 남겨놓고 현재 11명이 뛰고 있다.

박지수는 전력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는 많은 숙제가 생긴

다. 이감독은 "아직 공식적으로 박지수의 합류 여부를 통보받지 않았다.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시차적응, 피로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언제 경기에 투입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실 박지수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맞춰왔다. 외곽 슛 찬스를 만드는 패턴도 훈련을 열심히 했다. 박지수가 오

면 몇 가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대표팀 사령탑으로 대회 중 전술에 변화를 줘야 하는 어려움을 내비쳤다.

이날 단일팀의 경기는 관중석 절반 이상을 코리아 응원단이 차지해 "우리는 하나다"를 외쳤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일국 북한 체육상이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rush@donga.com

국가별 메달 순위 (20일 22시)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중국	14	8	8	30
2	일본	7	10	9	26
3	인도네시아	4	2	2	8
4	대한민국	3	8	9	20
5	대만	3	1	4	8
6	북한	3	1	1	5
7	이란	2	2	3	7
8	인도	2	2	1	5
9	카자흐스탄	1	2	3	6
9	우즈베키스탄	1	2	3	6

주목! 오늘의 명승부 (한국시간)

- 사격**
남자 50m 소총3자세, 10m 공기권총, 혼성 산탄총 트랩 본선 및 결선
▶오전 11시
- 레슬링**
여자 자유형 68kg급 · 76kg급
남자 그레코로만형 60kg급 · 67kg급 예선 및 결승
▶오후 3시
- 펜싱**
남자 플뢰레 · 여자 에페 예선 및 결승
▶오전 11시
- 태권도**
겨루기 여자 57kg급 · 67kg급
남자 80kg 초과급 예선 및 결승
▶오전 11시
- 양궁**
여자 리커브 개인전
▶오전 10시20분
남자 리커브 개인전 랭킹라운드
▶오후 3시15분
- 축구**
여자 예선 한국-인도네시아
▶오후 8시30분
- 배구**
여자 예선 한국-카자흐스탄
▶오후 2시30분
- 핸드볼**
여자 예선 한국-중국
▶오후 8시
- 하키**
여자 예선 한국-인도네시아
▶오후 8시



불꺼진 펜싱장·거꾸로 태극기·중국국기 추락

AG 대회장 곳곳 미숙한 운영 눈살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숙한 대회 운영이다. 장비는 물론 담당자들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문제도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선수들의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있어 마냥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

20일 펜싱 여자 플뢰레 예선이 진행 중

이던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 설치된 피스트 위의 조명이 모두 소등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분 뒤 조명이 점등돼 경기를 재개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조명이 이후 세 차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한 탓에 제대로 경기가 진행되지 못했다.

선수들이 한창 경기를 치르던 상황이라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종목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중단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행히 20여분 뒤 경기가 다시 재개됐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러던 남자 사브르 예선 도중에는 B조에 속한 선수(5명) 명단이 표출된 전광판이 말뚝을 부렸다. 불량화소가 발생해 중국 국기(오성홍기)를 4분의1 가량 가린 것이다. 여자 플뢰레 32강전에선 싱가포르 선수(베르티에)의 이름이 가려지기도 했다. 19일 겔라라 봉 카르노(GBK) 수영장에서 열린 시상식 때 오성홍기가 추락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던 터라 중국 선수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게다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 남자 100m 배영 시상식 때는 태극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사고를 냈다. 이렇듯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펜싱협회 관계자는 "JCC가 좁은 관중석 등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경기 자체를 위한 설비는 최고의 수준"이라면서도 "애초 종합경기장 근처에서 펜싱 경기를 하려다가 천장이 낮아 장소가 바뀌었다. 기존에는 컨벤션센터로 쓰던 곳이다 보니 냉방시설 등 엄청난 전력량을 감당하느라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금빛 피날레" 사격황제 진중오의 간절함

오늘 10m 공기권총 개인전 출격 "한 종목만 출전...오히려 더 집중"

'슈팅 마스터' 진중오(39·KT)는 사격선수로서 이미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올림픽 최초로 2008베이징·2012런던·2016리우 대회 남자 50m 공기권총 3연패를 차지하는 등 총 4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국제사격연맹(ISSF) 세계선수권대회와 월드컵 파이널, 아시안게임(AG), 아시아선수권 등 총 5개 국제대회에서 각각 세 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진중오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업적들이



진중오

다. 사격은 멘탈(정신력)이 육체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경기 내내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진중오의 '장기 집권'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많은 메달을 목에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중오의 여전한 목이 마르다. 2018자카르타-팔렘방AG에 임하는 각오도 그만큼 특별하다. 대회를 앞두고는 "4년 뒤에는 40대 중반

이다. 이번 대회를 마지막 AG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 무대가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시티 사격장에서 열리는 남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이다. AG를 제외한 4개 국제대회에서 모두 한 차례씩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종목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과거와는 달리 이번 대회에 진중오는 한 종목에만 참가한다. 10m 공기권총 개인전 성적이 진중오의 이번 대회 성적이다. 엄청난 부담을 안고 싸워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도쿄올림픽부터 진중오의 주종목인 50m 공기권총을 비롯해 50m 소총 복사, 더블트랩 등 남자 종목 세 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탓에 이번 AG에서도 세 종목이 빠졌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